

“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만듭시다”



# 보 도 자 료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층, TEL.042-331-0092, FAX.042-252-6976  
www.cham.or.kr

수 신 / 언론사 담당기자 등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간사 설재균 042-331-0092, 010-3583-8786)  
제 목 / 2019년 대전광역시의회 의정 활동 모니터링 평가 종합보고서  
날 짜 / 2020년 2월 13일

## 2019년 대전광역시의회 의정 활동 모니터링 결과

- 2019년 대전광역시의회 활동, 낙제점!
- 제20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올해의 정치인” 없음, 상임위원회 우수 의원은 김찬술 의원만 유일...
- 2020년 잃어버린 도덕적 신뢰 회복은 물론, 의정활동의 질을 높여야 한다!

### 1. 대전광역시의회 모니터링 평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의회 모니터링팀(이하 모니터링팀)을 구성해 지난 2018년부터 대전광역시의회를 모니터링 해 오고 있다. 올해에도 2019년 대전광역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다음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모니터링팀의 시의회 모니터링 평가 내용이다.

첫째, 시의원들의 자치입법능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의원들의 조례발의를 근거로 조례 제정 및 개정 횟수를 측정했다.

둘째, 시의원들의 주민대표능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시의원들의 주민의견수렴 과정(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과 회의 출석율, 5분 발언에 대해서 측정했다.

셋째, 시의원들의 집행감시능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을 나눠 평가했다.

2019년 대전광역시의회 의정활동을 보면 위원회별, 의원별 편차가 너무도 컸다. 거의 대부분의 의원이 원론적 질의나 당부 수준의 발언으로 일관했다. 의원들의 공부와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2020년에는 임기 3년차에 접어든다. 이제는 결과물을 보여야 할 때다. 특히 본연의 책무인 주민 대표, 입법 활동, 시정 견제라는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모니터링팀 또한 2020년에도 대전시와 대전광역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 2. 상임위원회별 우수 의원과 올해의 정치인

### 1) 2019년 각 상임위원회 우수 의원

2019년 의정 활동을 평가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수 의원을 선정했다. 안타깝게 2018년과는 다르게 상임위원회별 우수 의원을 선정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2020년에는 의원들의 분발을 기대하며, 더욱 충실한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란다.

- 행정자치위원회 : 없음.
- 산업건설위원회 : 김찬술 의원
- 복지환경위원회 : 없음.
- 교 육 위 원 회 : 없음.

2) 제20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올해의 정치인” : 없음.

■ 문 의 : 간사 설재균(010-3583-8786/042-331-0092)

■ 첨 부 : 2019년 대전광역시의회의 의정 활동 모니터링 평가 종합보고서

2020년 2월 1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진, 문현웅, 이진희

# 2019년 대전광역시의회 의정 활동 모니터링 평가 종합보고서

## <목 차>

○ 종합보고서 요약 .....	2
○ 종합 결과보고서 .....	7
○ 결론 .....	32
○ 상임위원회별 우수 의원과 올해의 정치인 .....	37

■ 일시 : 2020년 2월 13일(목)

■ 보고서 작성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모니터링팀

■ 담당 : 간사 설재균(042-331-0092/010-3583-8786)

## 2019년 대전광역시의회 의정 활동 모니터링 결과

- 2019년 대전광역시의회 활동, 낙제점!
- 제20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올해의 정치인” 없음, 상임위원회 우수 의원은 김찬술 의원만 유일...
- 2020년 잃어버린 도덕적 신뢰 회복은 물론, 의정활동의 질을 높여야 한다!

2019년 대전광역시의회의 모습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으며, 시의회의 수장인 김종천 의장은 검찰로부터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의회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사과와 반성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대전시민을 기만하는 행위고, 안일한 처사다. 지금이라도 사과와 재발방지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모니터링팀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대전광역시의회 의정 활동을 모니터링 했다. 의정활동 또한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게 총평이다.

### 1. 겸직현황

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6명, 2019년 역시 6명으로 나타났다. 남진근, 이종호, 권중순, 김소연, 손희역 의원은 여전히 겸직이 유지됐고, 이광복 의원이 추가됐다. 시의원의 겸직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청탁과 민원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출직 공직자는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이 영리목적 업무를 겸직하는 것에 대한 자체적인 제한이 필요하다.

### 2. 자치입법 평가

1년차 때(2018년 하반기) 제.개정된 조례가 14건(제정 8건, 개정 6건)이었던 반면, 2019년 2년차 접어들어서는 103건(제정 44건, 개정 59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22명의 의원 중 21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전체 제.개정 대표발의는 홍종원 의원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계순 의원이 8건, 구본환 의원이 7건, 민태권, 오광영, 윤용대 의원이 각각 6건, 남진근, 박혜련, 우승호, 이광복, 이종호 의원이 각각 5건, 김찬술, 문성원, 조성철 의원이 각각 4건, 권중순, 김소연, 김인식, 손희역, 우애자, 윤종명, 정기현 의원이 각각 3건을 발의했다. 김종천 의원은 제정, 개정 모두 발의하지 않았다.

이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는 2018년 종합 보고서에서 광주, 부산, 경기도처럼 조례의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실효성, 공정성, 주민의견 수용성, 조례 지원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대전 현실과의 부합성 등을 담은 입법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45회 임시회에서 김소연 의원이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 발의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향후 이 조례가 적정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평가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 3. 주민대표 평가

주민대표 평가 지표로 주민의견수렴 활동(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회의 출석율, 5분 발언을 살펴봤다.

#### 1) 주민의견수렴(간담회/토론회/공청회/설문조사)

22명의 의원 중 19명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2018년에 비해 양적으로 간담회와 토론회가 증가했을지는 몰라도 직접적으로 지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나 설문조사가 없는 건 아쉬운 장면이다.

2019년 활동을 의원별로 나눠 보면 구본환, 김인식, 정기현 의원이 간담회와 토론회를 각각 6회 개최해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권중순, 김종천, 손희역 의원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단 1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반복하지만 주민대표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주민의견수렴 활동이다. 2020년에는 더욱더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활동을 넓혀야 한다.

#### 2) 회의 출석율

2019년 241회 임시회부터 246회 정례회까지 공식적으로 134회의 회의가 개최됐다. 2019년에는 불참율이 지난 2018년 7건에 비해 19건으로 늘어났다. 강조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회의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회의 출석은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3) 5분 발언

제8대 의회가 개원하고, 2018년의 경우에는 총 14건의 5분 발언이 있었고, 2019년에는 55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9년에는 22명의 의원 중 20명의 의원이 5분 발언했다. 구본환 의원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소연 의원이 6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권중순, 김종천 의원은 1건도 발언 하지 않았다. 2018~2019년 전체를 보면, 구본환 의원이 9건으로 가장 많은 5분 발언을 했다.

5분 발언 중 눈에 띄는 부분은 242회 임시회에서 김찬술 의원의 “(가칭)대전교통공사 설립 및 대전 동북부 순환도로 교통망 구축 필요”, 정기현 의원의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관 신설 촉구”, 24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본환 의원이 발언한 “유·초·중학교 공동급식 개선대책 관련”은 재정여건, 현장방문 등을 통한 근거 있는 대안제시으로써 우수한 질의였다.

또한 244회 임시회에서 박혜련 의원이 발언한 “임기제 공무원 임기 자동 연장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은 임기제공무원의 노동환경을 환기시켰고, 245회 임시회에서 우승호 의원이 발언한 “대전시 홈페이지 활성화 통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견제로써 적절했다.

그러나 2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소연 의원이 “8개동 자치지원관 사업 현황 및 문제점” 5분 발언을 통해 동자치지원관 문제제기 과정 중 청년실업률과 공무원 시험 경쟁률을 연결하는 것은 논리비약이 심했다. 또한 동자치지원관의 인건비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김소연 의원은 2차 본회의에서도 “지역화폐 사업의 위법성 및 예산편성과 집행상 문제점” 5분 발언에서도 추측을 기반으로 특정인과 특정 단체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시의원의 공식적인 발언은 근거를 기초로 해야한다. 개인적인 추측을 기정사실화하며 비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 **4. 집행감시 평가**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는 “의회의 제1책무는 견제와 감시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견제와 감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의회의 정례회와 임시회다.

##### **1) 제241회 임시회 평가**

241회 임시회에서 개최된 상임위원회 대부분, 대전시 2019년 사업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가 보이지 않았다. 특히 복지환경위원회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한다. 생활복지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환경 및 생태계에 대한 기초를 수립하고, 그 방향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제242회 임시회 평가**

상임위원회는 물론 본회의에서 본청의 자료 제출 미비는 시의회 경시임을 지적했다. 하지만 같은 지적이 계속되면 시의회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고유 핵심사업과 대전시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는 없고, 소규모 단위 사업 확인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교육위원회는 질의다운 질의가 거의 없었다. 교육청 견제라는 본연의 의무에 너무도 소홀한 회기였다.

무엇보다 4개 상임위원회 모두 추경예산의 목적과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보다는 개별 사업에 대한 확인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반복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의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와 개선 요구보다는, 사업의 표면에서 표류했다. 사업 내용 파악은 상임위에서 미리 질의하고, 파악해야 했다. 더욱 실망스러운 건, 상임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질의조차 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었다. 추경

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실망스런 임시회였다.

### 3) 제243회 제1차 정례회 평가

결산회기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에 대한 질의가 부족했고 이전과 다르지 않은 질의로 채워졌다. 지적만 할 게 아니라 개선을 이끄는 활동으로 변화해야 한다.

향후에는 정책과 이슈에 대한 준비가 충실해져야 한다. 또한 계속 지적하는 대전시 산하 기관의 예산 집행 문제와 감사 문제에 대해서 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및 특위 구성도 고려해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대전시나 대전시교육청 모두 불용액 관련 답변 태도는 매우 불성실하고 불량했다.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차원의 대책도 향후에는 마련돼야 한다. 그럼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찬술 의원의 성실한 준비와 의미 있는 질의는 칭찬할 만하다.

### 4) 제244회 임시회 평가

상반기 사업 결산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점검하는 회기임에도, 단순확인 수준의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사업에 대한 방향성과 대안 제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질의가 이뤄져야 한다. 의정 활동 1년째다. 업무파악만 할 게 아니라 이슈를 발굴해야 한다. 특히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들의 공부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5) 제245회 임시회 평가

정체기를 보이는 회기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회의 준비가 잘 돼 있고, 의원 간 질의 내용 배분도 적절했다. 박혜련 위원장의 회비 준비와 회의 운영이 돋보였다. 특히 용역이나 민간 위탁에 대한 대전시의 준비 부족에 대한 지적은 적절했다. 반면 교육위원회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발언을 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었으며, 내용이 거의 없어 평가 자체가 불가능했다.

산업건설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는 점점 하향평준화 되는 모습을 보였다. 분발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김찬술 의원만큼은 가장 우수한 질의와 내용을 보였다. 다만 김찬술 의원에게 아쉬운 점은 자신의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 지역균형을 근거로 감정을 앞세우는 발언들이 많다는 점이다. 시의원인만큼 대전시 전체를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새롭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본환 의원을 제외하고는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 개인별 관심 사업에 대한 질의와 질타가 대부분이었다.

### 6) 제246회 제2차 정례회 평가

행감 이후 회기였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내용은 눈에 띄지 않았다. 다만 위원회 별 수준 편차가 컸다. 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더욱 분발이 요구된다.

홍종원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피감기관들이

산출 근거없이 내역을 추정해서 보고하는 건 지양돼야 한다. 대전광역시의회 또한 이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산출근거 없는 자료제출로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승호 위원장과 김소연 위원의 시의원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논쟁은 부적절한 모습이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본질에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3차 본회의에서 김종천 의장이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특정 종교와 단체들의 왜곡된 혐오표현을 반영하여 의장 직권으로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은 건 문제가 매우 크다.

2019년 대전광역시의회 의정활동을 보면 위원회별, 의원별 편차가 너무도 컸다. 거의 대부분의 의원이 원론적 질의나 당부 수준의 발언으로 일관했다. 의원들의 공부와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2020년에는 임기 3년차에 접어든다. 이제는 결과물을 보여야 할 때다. 특히 본연의 책무인 주민 대표, 입법 활동, 시정 견제라는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모니터링팀 또한 2020년에도 대전시와 대전광역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 5. 상임위원회별 우수 의원과 올해의 정치인

### 1) 2019년 각 상임위원회 우수 의원

2019년 의정 활동을 평가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수 의원을 선정했다. 안타깝게도 2018년과는 다르게 상임위원회별 우수 의원을 선정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2020년에는 의원들의 분발을 기대하며, 더욱 충실한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란다.

- 행정자치위원회 : 없음.
- 산업건설위원회 : 김찬술 의원
- 복지환경위원회 : 없음.
- 교 육 위 원 회 : 없음.

### 2) 제20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올해의 정치인” : 없음.



## 종합 결과보고서

### I. 배경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의회 모니터링팀(이하 모니터링팀)을 구성해 지난 2018년부터 대전광역시의회를 모니터링 해 오고 있다. 올해에도 2019년 대전광역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 II. 모니터링 평가 내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모니터링팀은 시의회의 모니터링 평가 내용으로, 첫째, 시의원들의 자치입법능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의원들의 조례발의를 근거로 조례 제정 및 개정 횟수를 측정했다.

둘째, 시의원들의 주민대표능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시의원들의 주민의견수렴 과정(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과 회의 출석율, 5분 발언에 대해서 측정했다.

셋째, 시의원들의 집행감시능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을 나눠 평가했다.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1> 대전광역시의회 의정활동 평가표**

구분	자치입법	주민대표	집행감시
<b>측정 지표</b>	① 조례 제정 건수 ② 조례 개정 건수	① 주민의견수렴도 ② 회의 출석율 ③ 5분 발언	①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발언 (회의별 발언, 시정질의, 서면질의 등) ② 행정사무감사
<b>지표 내용</b>	단체장 발의 조례가 아닌 시의원 발의로 처리된 일반행정조례 제개정 건수와 실효성	① 주민의견수렴 - 간담회 관련(시의원 주관 및 참여) - 토론회 관련(시의원 주관 및 참여) - 공청회 : 참석발의 - 설문조사: 전문기관 의뢰/공유  ② 회의 출석 -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 출석율  ③ 5분 발언 - 회기내 5분 발언에 대해서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 평가	①~② 집행감시능력을 중점으로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 측정  <전문성> +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기반으로 발언하는가? + 예산, 법령, 제도의 문제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는가?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 및 예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가? +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역할로써, 대전시 전체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이 있는가?  <구체성> + 제시자료 또는 지적하는 내용이 구체적인가? + 제출받은 자료 및 추가 자료 제시하는가? + 해당사항에 대해 현장 조사, 현장 의견 청취가 있는가? + 언론 등 기존에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 지적하는가?  <대표성> +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질의하는가? + 해당 지역구의 사안인가? 대전시 전체의 사안인가? 국가 전체의 사안인가? + 대전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점에서 질의하는가?
<b>측정 방식</b>	- 의원별 조례 건수 정량 측정	- 주민의견수렴 및 회의 출석은 정량 측정  - 5분 발언은 횟수와 더불어 발언 내	- 집행감시능력 측정방식은 모니터링팀의 정성 평가

	용은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이 있는지 정성 평가	
--	--------------------------------	--

### Ⅲ. 2019년 대전광역시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

#### 1. 겸직현황

##### 1) 2018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겸직 현황

의원명	소속정당	겸직여부(겸직기관명 및 직위)
남진근	더불어민주당	남안경원 대표
이종호	더불어민주당	전국택시산업노조 대전지역본부 의장
윤종명	더불어민주당	주식회사 어울림 대표
권중순	더불어민주당	권중순 세무사무소 소장
손희역	더불어민주당	대원통운 대표
김소연	무소속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 2) 2019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겸직 현황

의원명	소속정당	겸직여부(겸직기관명 및 직위)
남진근	더불어민주당	배재대 행정학과 대외협력 교수, 안경원 대표
이종호	더불어민주당	전국택시산업노조 대전지역본부 의장
이광복	더불어민주당	배재대 무역물류학과 강사
권중순	더불어민주당	세무사무소 소장
김소연	바른미래당	법률사무소 변호사
손희역	더불어민주당	대원통운 대표

지난 2년 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의 겸직 현황을 보면 2018년 6명, 2019년 역시 6명으로 나타났다. 눈여겨볼 부분은 윤종명 의원의 경우, 2년차 접어들어 겸직에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남진근, 이종호, 권중순, 김소연, 손희역 의원은 여전히 겸직이 유지됐고, 이광복 의원은 2019년 들어 겸직이 추가됐다.

시의원의 겸직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청탁과 민원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출직 공직자는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이 영리목적 업무를 겸직하는 것에 대한 자체적인 제한이 필요하다.

#### 2. 자치입법 평가

조례는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 시의원의 자치 입법 능력을 대변한다. 특히 조례 입법권은 시민의 복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게 그 목적이 다. 자치입법은 조례 제정, 개정 대표 발의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지난 제7대 의회(2014년 7월 ~ 2018년 6월) 때 시의원의 조례 제.개정수를 보면 총 449건으로 제정은 215건, 개정은 234건으로 나타났다. 1년차(2014년)때의 제.개정 수는 20건(제정 11건, 개정 9건), 2년차(2015년)때는 114건(제정 50건, 개정 64건), 3년차(2016년)때는 106건(제정 59건, 개정 47건), 4년차(2017년)때는 179건(제정 83건, 개정 96건), 5년차(2018년 상반기)때는 30건(제정 12건, 개정 18건)이었다. 제7대 의회에서 조례 입안 건수는 의정 활동이 안정될수록 강세를 보였고,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에 가장 많이 입안되었다.

제8대 의회 들어서는 1년차 때(2018년 하반기) 14건(제정 8건, 개정 6건)이었던 반면, 2019년 2년차 접어들어서는 103건(제정 44건, 개정 5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 1) 조례 제정 발의 분석

<표 2> 2018년 대전광역시의회 조례 '제정' 대표발의 현황

의안 번호	대 표 발의자	처리회기	의안명	상태
174	구본환	8대-241회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안	원안가결
262	구본환	8대-243회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안	원안가결
269	구본환	8대-243회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425	구본환	8대-246회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조례안	원안가결
411	권중순	8대-246회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369	김소연	8대-245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370	김소연	8대-245회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수정가결
371	김소연	8대-245회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208	남진근	8대-242회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안	원안가결
273	남진근	8대-243회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수정가결
417	남진근	8대-246회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원안가결
258	문성원	8대-243회	대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368	문성원	8대-245회	대전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175	민태권	8대-241회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원안가결
218	민태권	8대-242회	대전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원안가결
265	민태권	8대-243회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조례안	원안가결
266	민태권	8대-243회	대전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415	박혜련	8대-246회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안	원안가결
216	오광영	8대-242회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조례안	원안가결
419	오광영	8대-246회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431	오광영	8대-246회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375	우승호	8대-245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430	우승호	8대-246회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원안가결
306	우애자	8대-244회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안	원안가결
410	우애자	8대-246회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안	원안가결
422	우애자	8대-246회	대전광역시 모유수유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271	윤용대	8대-243회	대전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조례안	원안가결
367	윤용대	8대-245회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	수정가결
409	윤용대	8대-246회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421	윤종명	8대-246회	대전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	원안가결
205	이광복	8대-242회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조례안	원안가결
182	이종호	8대-241회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219	이종호	8대-242회	대전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원안가결
310	이종호	8대-244회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346	이종호	8대-245회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례안	원안가결
347	이종호	8대-245회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안	원안가결
270	정기현	8대-243회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안	원안가결
432	정기현	8대-246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조례안	원안가결
176	조성철	8대-241회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원안가결
257	채계순	8대-243회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313	홍종원	8대-244회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348	홍종원	8대-245회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	원안가결
361	홍종원	8대-245회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원안가결
372	홍종원	8대-245회	대전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원안가결

2019년 대전광역시의회가 발의한 제정 대표발의는 <표 2>처럼 44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7대 의회 2년 차 때 50건에 비해 44건으로 6건 적었다.

의원별로 보면 이종호 의원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본환, 민태권, 홍종원 의원이 각각 4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김소연, 남진근, 오광영, 우애자, 윤용대 의원이 각각 3건, 문성원, 우승호, 정기현 의원이 각각 2건, 권중순, 박혜련, 윤종명, 이광복, 조성철, 채계순이 의원이 각각 1건을 발의했다. 김인식, 김종천, 김찬술, 손희역 의원은 1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는 2018년 종합 보고서에서 광주, 부산, 경기도처럼 조례의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실효성, 공평성, 주민의견 수용성, 조례 지원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대전 현실과의 부합성 등을 담은 입법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45회 임시회에서 김소연 의원이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 발의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향후 이 조례가 적정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평가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하지만 245회에서 윤용대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 문제, 대덕구의 기존 지역화폐와의 조율 문제 등을 이유로 보류했으나, 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뚜렷한 대안 없이 통과된 건 문제가 있다.

## 2) 조례 개정 발의 분석

<표 3> 2018년 대전광역시의회 조례 '개정' 대표발의 현황

의안 번호	대표발의	처리회기	의안명	상태
177	구본환	8대-241회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60	구본환	8대-243회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52	구본환	8대-245회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15	권중순	8대-242회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53	권중순	8대-245회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04	김인식	8대-244회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05	김인식	8대-244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18	김인식	8대-246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7	김찬술	8대-242회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77	김찬술	8대-243회	대전도시공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00	김찬술	8대-244회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50	김찬술	8대-245회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49	남진근	8대-245회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58	남진근	8대-245회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81	문성원	8대-24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360	문성원	8대-245회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62	민태권	8대-245회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66	민태권	8대-245회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72	박혜련	8대-243회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312	박혜련	8대-244회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74	박혜련	8대-245회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07	박혜련	8대-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71	손희역	8대-241회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64	손희역	8대-245회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73	손희역	8대-245회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17	오광영	8대-242회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07	오광영	8대-244회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56	오광영	8대-245회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68	우승호	8대-243회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51	우승호	8대-245회	대전광역시근로자임대아파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24	우승호	8대-246회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11	윤용대	8대-242회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63	윤용대	8대-243회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09	윤용대	8대-244회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6	윤종명	8대-242회	대전효문화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14	윤종명	8대-242회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12	이광복	8대-242회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79	이광복	8대-243회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12	이광복	8대-246회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13	이광복	8대-246회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29	정기현	8대-246회	대전광역시 문자해독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11	조성철	8대-244회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43	조성철	8대-245회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63	조성철	8대-245회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56	채계순	8대-243회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64	채계순	8대-243회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15	채계순	8대-244회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59	채계순	8대-245회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08	채계순	8대-246회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23	채계순	8대-246회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26	채계순	8대-246회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73	홍종원	8대-241회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61	홍종원	8대-243회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45	홍종원	8대-245회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357	홍종원	8대-245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안전수업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65	홍종원	8대-245회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생존수업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14	홍종원	8대-246회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20	홍종원	8대-246회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427	홍종원	8대-246회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어 2019년 대전광역시의회의가 발의한 개정 대표발의는 <표 3>처럼 59건으로 나타났고, 3건을 제외한 모든 발의가 원안가결 됐다. 하지만 역시 지난 7대 의회 2년 차 때 발의한 64건에 비해 5건이 낮은 59건이었다.

홍종원 의원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계순 의원도 7건을 발의했다. 이어 김찬술, 박혜련, 이광복 의원이 각각 4건, 구본환, 김인식, 손희역, 오광영, 우승호, 윤용대, 조성철 의원이 각각 3건, 권중순, 남진근, 문성원, 민태권, 윤종명 의원이 각각 2건, 정기현 의원이 1건을 발의했다. 김소연, 김종천, 우애자, 이종호 의원은 개정 발의가 없었다.

### 3) 의원별 조례 제·개정 발의 분석

<표 4> 2018~2019년 의원별 조례 제·개정 대표발의 수

구분	2018년		2019년		의원별 제·개정 합계
	제정	개정	제정	개정	
구본환	1	0	4	3	8
권중순	1	1	1	2	5
김소연	1	0	3	0	4
김인식	0	0	0	3	3
김종천	0	0	0	0	0
김찬술	0	1	0	4	5
남진근	0	1	3	2	6
문성원	0	0	2	2	4
민태권	0	0	4	2	6
박혜련	2	0	1	4	7
손희역	1	0	0	3	4
오광영	0	1	3	3	7
우승호	1	0	2	3	6
우애자	0	0	3	0	3
윤용대	0	0	3	3	6
윤종명	0	0	1	2	3
이광복	0	0	1	4	5
이종호	0	0	5	0	5
정기현	0	1	2	1	4
조성철	0	0	1	3	4
채계순	1	0	1	7	9

홍종원	0	1	4	8	13
합계	8	6	44	59	117
총 합계	14		103		

의원별 조례 제·개정 합산을 보면, 22명의 의원 중 21명의 의원이 제정 44건, 개정 59건으로 총 103건을 대표 발의했다.

전체 제·개정 대표발의는 홍종원 의원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계순 의원이 8건, 구본환 의원이 7건, 민태권, 오광영, 윤용대 의원이 각각 6건, 남진근, 박혜련, 우승호, 이광복, 이종호 의원이 각각 5건, 김찬술, 문성원, 조성철 의원이 각각 4건, 권중순, 김소연, 김인식, 손희역, 우애자, 윤종명, 정기현 의원이 각각 3건을 발의했다. 김종천 의원은 제정, 개정 모두 발의하지 않았다.

2018, 2019년을 도합해 살펴보면, 홍종원 의원이 13건을 발의하며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반면 김종천 의원은 단 한건의 대표발의 하지 않았고, 의원들 간 발의 편차가 컸다. 조례 제·개정 발의를 단순히 수치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조례 발의는 의원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 3. 주민대표 평가

주민대표 능력에 대한 지표로 삼은 건 주민의견수렴 활동(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회의 출석율, 5분 발언으로 개인 민원과 특정 사항에 대한 이해관계는 평가 지표에서 제외했다.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가장 큰 지표고, 5분 발언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여기에 회의 출석율은 의원의 기본 성실성을 확인하는 기본 지표다.

#### 1) 주민의견수렴(간담회/토론회/공청회/설문조사)

<표 5> 의원별 주민의견수렴(간담회/토론회/공청회/설문조사) 내용

의원 성명	주민의견 수렴방법	방식	행사명	일시	장소	주요내용	소요 예산 (천원)
오광영	토론회	주관	대전광역시 노동정책 방향 모색 정책 토론회	1.23	의회 대회의실	대전광역시 노동정책 방향 모색	1,071
문성원	간담회	주관	상서평촌재정비촉진지구 정주여건 개선 주민간담회	1.29	덕암동 주민센터	상서평촌재정비촉진지구 정주여건 개선	381
김인식	간담회	주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스포츠강사 처우 개선 좌담회	2.8	김인식 의원실	시교육청 초등스포츠강사 처우 개선	-
우애자	토론회	주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2.20	의회 대회의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1,126
문성원	간담회	주관	동부1지구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	2.26	신탄진동 행정복지센터	동부1지구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향 모색	186
문성원	간담회	주관	회덕중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	3.5	회덕중	회덕중학교 체육관 건립 관련	185

김인식 윤종명	간담회	주관	대전시지역아동센터추경예산및 운영관련정책간담회'	3.5	의회 대회의실	대전시 지역아동센터 추경예산 및 운영 관련	975
정기현	토론회	주관	학교폭력 갈등.분쟁조정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3.12	의회 대회의실	학교폭력 갈등.분쟁조정 방안 모색	1,117
김찬술	간담회	주관	비래동~용운동~판암동 순환 66번 버스노선 신설 주민간 담회	4.3	비래동 행정복지센터	비래동~용운동~판암동 순환 66번 버스노선 신설	185
문성원	간담회	주관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주민간담회	4.4	덕암주민센터	평촌지구도시개발사업관련	186
채계순	토론회	주관	주민참여 공동육아 활성화 정 책토론회	4.11	의회 대회의실	주민참여 공동육아 활성화	805
구본환	간담회	주관	유치원 현장학습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	4.18	의회 대회의실	유치원 현장학습 활성화방안 모색	226
구본환	간담회	주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악취와의 전쟁 주민설명회	4.22	북부여성가족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악취와의 전쟁 주민설명회	194
정기현	간담회	주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 한 대전.충청지역 간담회	4.30	의회 대회의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559
김찬술	간담회	주관	송촌동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 공사 주민간담회	5.8	송촌동행정복지센 터	송촌동주차전용건축물건립공 사	176
정기현	토론회	주관	대전청소년정책 문제점 및 지 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5.9	신성동행정복지센 터	대전청소년정책 문제점 및 지원방안 모색	1,660
구본환	토론회	주관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정책토 론회	5.15	의회 대회의실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908
김소연	토론회	주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5.24	의회 대회의실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805
우승호	토론회	주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5.29	의회 대회의실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관련	1,075
홍종원	토론회	주관	대전발전 100년을 위한 한발 아구장 신축방안 열린토론회	5.30	의회 대회의실	한발아구장신축방안	951
김인식	간담회	주관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	6.13	의회 대회의실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147
오광영	토론회	주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정책 토론회	6.24	의회 대회의실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역량 강화및공동체활성화	696
이광복	간담회	주관	대전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개선방안 정책간담회	6.24	의회 대회의실	대전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개선방안	155
채계순	토론회	주관	대전시 돌봄 전담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6.25	의회 대회의실	대전시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	685
김소연	토론회	주관	청년과 함께하는대전발전방안정 책토론회	6.28	의회 중회의실	청년과 함께하는 대전발전방안	798
김인식	토론회	주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지원체계 재구조화방안모색을위한정책토 론회	7.2	의회 대회의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지원체 계재구조화방안모색	577
김인식	토론회	주관	대전시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7.4	의회 대회의실	대전시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모색	761
김인식	간담회	주관	특수교육실무원 처우 개선 간 담회	7.4	김인식 의원실	특수교육실무원 처우 개선	-
구본환	토론회	주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중장년 층 지원을 위한 대응방안 정 책토론회	7.9	의회 대회의실	새로운복지사각지대,중장년층 지원을위한대응방안	795
구본환	토론회	주관	대전근현대역사관건립방안정책 토론회	7.11	의회 대회의실	대전근현대역사관 건립방안	1,029
채계순	간담회	주관	컨택센터 노동자 권익증진 방 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	7.15	의회 대회의실	컨택센터 노동자 권익증진 방안 모색	805
우애자	토론회	주관	대전예술발전을위한청년음악가 연주기회확대방안정책토론회	7.16	의회 대회의실	대전예술발전을 위한 청년음악가 연주기회 확대방안	1,222
김찬술	간담회	주관	대전IC만남의광장조성을 위한 정책간담회(14:00)	7.24	의회 대회의실	대전IC만남의광장조성	148
오광영	토론회	주관	시내버스준공영제 발전방향을 위한 정책토론회	7.26	의회 대회의실	시내버스준공영제 발전방향	841
조성철	토론회	주관	청년참여예산실현을위한정책토	7.29	의회 대회의실	청년참여예산실현	



			론회				696
윤용대	토론회	주관	대전광역시지역화폐도입을위한 정책토론회	8.6	의회 대회의실	대전광역시지역화폐도입	961
조성철	토론회	주관	대전예술의전당독립법인화방안 정책토론회	8.21	의회 대회의실	대전예술의전당독립법인화방 안	1,059
정기현	토론회	주관	대학동아리활성화방안모색정책 토론회	8.22	의회 대회의실	대학동아리활성화방안모색	685
김소연	토론회	주관	학교성평등교육개선방안모색을 위한정책토론회	8.27	의회 대회의실	학교성평등교육개선방안모색	1,191
이종호	간담회	주관	동부5지구초등학교 교육환경개 선을위한학부모간담회	8.29	자양초	동부5지구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97
우애자	토론회	주관	인구정책 조례 제정을 위한 정 책토론회	9.4	의회 대회의실	인구정책 조례 제정	1,102
조성철	토론회	주관	대전학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9.9	의회 대회의실	대전학 활성화 방안	184
윤종명	토론회	주관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방 안 모색 정책토론회	9.17	의회 대회의실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777
채계순	토론회	주관	정부의커뮤니티케어정책현황과 대전시추진과제정책토론회	10.1	의회 대회의실	정부의커뮤니티케어정책현황 과 대전시추진과제	1,048
홍종원	간담회	주관	외국인주민지원정책개선을위 한전문가간담회	10.7	의회 중회의실	외국인주민지원정책개선을위 한전문가간담회	422
우승호	간담회	주관	장애학생편의지원을위한정책간 담회	10.21	의회 대회의실	장애학생편의지원을위한정책 간담회	801
구본환	간담회	주관	자활사업지원조례제정을위한정 책간담회	10.22	의회 중회의실	자활사업지원조례제정을위한 정책간담회	123
김소연	간담회	주관	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폐쇄,그 이후?정책간담회	10.23	의회 대회의실	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폐쇄 관련	648
민태권	간담회	주관	자율방범대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	10.24	의회 대회의실	자율방범대 활성화방안 모색	909
남진근	토론회	주관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발전을위 한 정책토론회	10.3	의회 대회의실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발전	751
조성철	토론회	주관	대전학연구센터의필요성과설립 방안정책토론회	11.14	대전세종연구원	대전학연구센터의필요성과설 립방안	115
김소연	토론회	주관	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폐쇄관련 주민토론회	11.20	의회 대회의실	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폐쇄관 련	150
윤종명	토론회	주관	대전 양반마을& 선비문화유적 벨트 조성을 위한 관광 활성 화방안 정책토론회	11.28	의회 대회의실	대전 양반마을 선비문화 테마관광 활성화방안	876
정기현	간담회	주관	대학순회정책간담회	11.29 ~12.7	대덕대외4	대학생의시각에서 본 청년문제	402
남진근	토론회	주관	지방분권활성화를위한지방자치 단체의역할과과제정책토론회	12.5	의회 대회의실	지방분권활성화를위한지방자 치단체의역할과과제	1,069
문성원	간담회	주관	연축마을취락지구지정주민간담 회	12.17	회덕동행정복지센 터	연축마을취락지구지정	127
정기현	간담회	주관	학생 정신건강 지원방안 모색 을 위한 정책간담회	12.19	의회 대회의실	학생 정신건강 지원방안 모색	809
조성철	토론회	주관	대전서예진흥방안모색을위한정 책토론회	12.23	의회 대회의실	대전서예진흥방안모색	514

<표 5>처럼 2019년 제8대 시의회 주민의견수렴 활동은 총 58건(공동주관 1건 포함)으로 나타났다. 간담회 25건(공동주관 1건 포함), 토론회 33건이었다. 2018년 에 26건에 비해 증가했지만, 여전히 공청회와 설문조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표 6> 2018~2019년 의원별 주민의견수렴 개최 수

구분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전체 합계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구본환	1	3	0	3	0	0	0	0	7
권중순	0	0	0	0	0	0	0	0	0
김소연	1	1	0	4	0	0	0	0	6
김인식	1	4	0	2	0	0	0	0	7
김종천	0	0	0	0	0	0	0	0	0
김찬술	0	3	0	0	0	0	0	0	3
남진근	1	0	0	2	0	0	0	0	3
문성원	0	5	0	0	0	0	0	0	5
민태권	1	1	0	0	0	0	0	0	2
박혜련	0	0	1	0	0	0	0	0	1
손희역	0	0	0	0	0	0	0	0	0
오광영	7	0	2	3	0	0	0	0	12
우승호	0	1	0	1	0	0	0	0	2
우애자	0	0	0	3	0	0	0	0	3
윤용대	0	0	0	1	0	0	0	0	1
윤종명	1	1	0	2	0	0	0	0	4
이광복	0	1	0	0	0	0	0	0	1
이종호	0	1	1	0	0	0	0	0	2
정기현	0	3	1	3	0	0	0	0	7
조성칠	0	0	4	5	0	0	0	0	9
채계순	2	1	1	3	0	0	0	0	7
홍종원	1	1	0	1	0	0	0	0	3
합계	16	26	10	33	0	0	0	0	85

<표 6>처럼 22명의 의원 중 19명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2018년에 비해 양적으로 간담회와 토론회가 증가했을지는 몰라도 직접적으로 지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나 설문조사가 없는 건 아쉬운 장면이다.

2019년 활동을 의원별로 나눠 보면 구본환, 김인식, 정기현 의원이 간담회와 토론회를 각각 6회 개최해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 이어 김소연, 문성원, 조성칠 의원이 각각 5회, 채계순 의원이 4회를 개최했다. 김찬술, 오광영, 우애자, 윤종명 의원이 각각 3회, 남진근, 우승호, 홍종원 의원이 각각 2회, 민태권, 이광복, 이종호 의원이 각각 1회를 개최했다. 반면 권중순, 김종천, 손희역 의원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단 1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반복하지만 주민대표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주민의견수렴 활동이다. 2020년에는 더욱더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활동을 넓혀야 한다.

## 2) 회의 출석율

시의회 회의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로 나뉘어져 진행된다. 2019년 241회 임시회부터 246회 정례회까지 공식적으로 134회의 회의가 개최됐다.

<표 7> 2019년 대전광역시의회 회의 불참 의원과 사유

위원회별	이름	기 간	사 유
------	----	-----	-----

24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남진근	2019.1.21 ~1.23.(3일)	모친상
24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구본환	2019.1.21(1일)	장인상
24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2019. 1. 23(1일)	모친병간호
241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손희역	2019. 1. 24(1일)	병원 진료
24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2019. 1. 25(1일)	신병 치료
24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정기현	2019. 6. 3(1일)	장인상
24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정기현	2019. 6. 4(1일)	장인상
243회 1차 정례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정기현	2019. 6. 4(1일)	장인상
241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소연	2019. 7. 1(1일)	소속당 행사 참석
24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2019. 7. 19(1일)	신병 치료
244회 임시회 본회의	손희역	2019. 7. 24(1일)	신병 치료
245회 임시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박혜련	2019. 10. 14(1일)	감기 몸살
24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손희역	2019. 11. 29(1일)	신병치료
24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정기현	2019. 11. 19(1일)	신병 치료
246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소연	2019. 12. 2(1일)	아시아정당국제회의 회의 참석
246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희역	2019.12.3. ~ 12.6(3일)	감기 몸살
246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소연	2019. 12. 11(1일)	신병치료
246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희역	2019. 12. 11(1일)	신병 치료
24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손희역	2019. 12. 13(1일)	신병 치료

지난 제7대 의회는 회기가 거듭될수록 의원들의 회의 불참율이 높아졌다. 2019년 또한 불참율이 지난 2018년 7건에 비해 19건으로 늘어났다. 강조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회의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회의 출석은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3) 5분 발언

의회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발언이 있다. 이 중에서 5분 발언은 본회의 전에 의원이 미리 신청해서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제도로, 의제가 된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표 8> 5분 자유발언 및 처리 결과 현황

회 기	의원명	5분 자유발언 내용	건수	조치 결과
제241회	홍종원	통학 사각지대 학생들을 위한 통학여건 개선 촉구	1	·버스노선 조정(완료) ·보도설치,통학버스 (추진중)
	박혜련	본격 개막된 2019 대전방문의 해, 붐업을 위한 제언	1	추진중
	채계순	기해년 3.1만세운동 100주년, 깊숙이 남아있는	1	추진불가

	민태권	일제잔재 청산하고 민족정기 바로 세우는 대전 건설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정을 적용방식 전환을 통한 재정 형평화 모색	1	자치구의견수렴 (완료)
	문성원	신탄진휴게소를 활용한 하이패스IC 신설 필요	1	추진중
	박혜련	재정자립도 관련,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1	신세원 발굴 등 (완료)
	구본환	장애인 재활승마 운영을 위한 지원 촉구	1	추진중
	제242회			
제242회	남진근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 노력 촉구	1	추진중
	우승호	고양중의 사회적협동조합(우꾸미) 사례가 대전지역 학교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안	1	추진중
	김찬술	가칭) 대전교통공사 설립 및 대전 동북부 순환도로 교통망 구축 필요	1	추진중
	정기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관 신설 촉구	1	추진중
	김인식	기성동 평촌산업단지 주민 동의 없는 LNG발전소 유치 계획 반대	1	추진중
	채계순	대전지역에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급성A형 간염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	추진중
	김인식	교육취약학생의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One-Stop지원센터 구축 촉구	1	추진중
	박혜련	외국인 경로인에게도 경로우대 혜택 필요	1	추진불가
	윤용대	지역경기에 활성화를 위한 대전지역사랑상품권 조속한 시행	1	추진중
	우애자	대전국제청소년 음악축전 개최 제안	1	추진중
	남진근	기후변화 대비, 물순환 및 하천으로의 오염물질 차단을 위해 개발사업에 대한 저영향개발기법 도입 촉구	1	추진중
제243회	윤종영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건설 대책 - 공동주택 화재 피난의 문제점과 외부 양방향 탈출형 대피시설의 필요성	1	추진중
	민태권	대전관광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및 개선방안 검토	1	추진중
	김인식	소외지역 시내버스 운행 등 이용서비스 개선 필요	1	추진중
	문성원	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제안 - 체류형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등	1	추진중
	구본환	유·초·중학교 공동급식 개선대책 관련 - 학생 연령대에 적합한 급식의 필요성 및 문제점, 개선대책 등	1	추진중
	이광복	장애인 버스 도입 필요 -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복지행정 필요	1	추진중
	오광영	대전시 4차산업혁명 추진과제 중 바이오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필요	1	추진중
	김소연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촉구 - 온라인 콘텐츠 활동, 교육의 불필요성 등	1	추진중
제244회	구본환	열악한 대전의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필요	1	추진중
	홍종원	대전발전 100년을 위한 베이스볼 드림 파크의 바람직한 신축방안 제안	1	추진불가
	박혜련	임기제공무원 임기 자동 연장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 관련	1	추진중
	손희역	대덕구 사회복지관 건립 촉구 - 저소득층 밀집지역(대화,중리,오정,회덕)	1	추진중
	김찬술	트램 차량기지 위치 이동 필요 - 기존 계획된 연속동차량기지를 회덕역 철도역 부지(국유지)로 이동검토	1	추진불가

	우승호	대전방문의 해와 연계한 대전시 캐릭터 '꿈돌이' 활용 활성화 촉구	1	추진중
	김소연	고액 강연료 논란 재발방지를 위한 제안 및 방지책 마련 촉구 - 마을교육공동체 내 혁신교육지구 운영 관련	1	추진중
	채계순	학교 비정규직 문제 대책수립 촉구 제언 -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처우개선 대책 촉구	1	추진중
	우애자	대전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청년합창단 창단 필요성	1	추진중
	조성철	산내 골령골 유해발굴사업 대전광역시 지원 현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1	추진중
제245회	우승호	대전시 홈페이지 활성화 통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 촉구 - 각종 위원회 회의결과 게재 등 운영 활성화	1	추진중
	오광영	균형있는 보훈정책 추진	1	추진중
	김소연	8개동 자치지원관 사업 현황 및 문제점	1	추진중
	구본환	미래지향적 새로운 대전어린이회관 건립 - 대전어린이회관 현황 및 문제점	1	추진중
	윤종영	갈등관리조정관 도입 촉구 -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및 위원회의 한계	1	추진중
	김소연	지역화폐 사업의 위법성 및 예산편성과 집행상 문제점 등	1	추진중
	김소연	주민참여예산, 시민공모제안 중복사업 문제 등	1	중복지원 배제 등 (완료)
	김소연	대전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공공형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필요	1	추진중
	구본환	소방공무원의 외성 후 스트레스장애 (PTSD) 등을 치료하기 위한 전문센터의 필요성	1	추진중
	민태권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계약시 지역 업체에 대한 우선권 부여 관련	1	추진중
	홍종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파크골프장 관리 운영방안의 필요성	1	추진중
제246회	구본환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 사업 추진과 관련한 소회 및 당부사항 - 해당 지역주민(구즉동, 관평동 및 전민동)과의 소통, 시차원의 정책적·행정적 지원요청 및 철저한 관리감독	1	추진중
	문성원	대전시와 대덕구 간 대전산업단지 내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 업무 시행 관련	1	추진중
	우애자	인구정책 조례 제정의 필요성 강조 - 대전시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 - 대전시 인구정책 조례의 필요성 강조	1	조례제정 (완료)
	구본환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필요	1	추진중
	우애자	집행부와 의회 관계 개선 및 의원 간 협치 강조	1	추진중
	김인식	대전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관련 문제점	1	추진중
	오광영	옛 충남도청사를 활용한 상설공연 추진	1	추진중
	이종호	대전문화재단 '아티언스 대전' 수의계약 관련	1	추진중

2019년 5분 발언 내용을 보면,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며 타당한 의견을 제시한 의원이 있는 반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의원도 여전히 존재했다. 무엇보다도 5분 발언에서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하며, 담당 기관이 이를 실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하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보였다.

5분 발언 중 주목할 부분은 242회 임시회에서 김찬술 의원의 “가칭)대전교통공사 설립 및 대전 동북부 순환도로 교통망 구축 필요”, 정기현 의원의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관 신설 촉구”, 24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본환 의원이 발언한 “유·초·중학교 공동급식 개선대책 관련”은 재정여건, 현장방문 등

을 통한 근거 있는 대안제시로 우수한 질의였다.

또한 244회 임시회에서 박혜련 의원이 발언한 “임기제 공무원 임기 자동 연장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은 임기제공무원의 노동환경을 환기시켰고, 245회 임시회에서 우승호 의원이 발언한 “대전시 홈페이지 활성화 통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견제로서 적절했다.

하지만 2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소연 의원이 “8개동 자치지원관 사업 현황 및 문제점” 5분 발언을 통해 동자치지원관 문제제기 과정 중 청년실업률과 공무원 시험 경쟁률을 연결하는 것은 논리비약이 심했다. 또한 동자치지원관의 인건비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김소연 의원은 2차 본회의에서도 “지역화폐 사업의 위법성 및 예산편성과 집행상 문제점” 5분 발언에서도 추측을 기반으로 특정인과 특정 단체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시의원의 공식적인 발언은 근거를 기초로 해야한다. 개인적인 추측을 기정사실화 하며 비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표 9> 의원별 2018, 2019년 5분 발언 건수

구분	2018년	2019년	합계
구분환	2	7	9
권중순	0	0	0
김소연	1	6	7
김인식	1	4	5
김종천	0	0	0
김찬술	0	2	2
남진근	0	2	2
문성원	1	3	4
민태권	0	3	3
박혜련	0	4	4
손희역	2	1	3
오광영	1	3	4
우승호	1	3	4
우애자	1	4	5
윤용대	1	1	2
윤종명	1	2	3
이광복	1	1	2
이종호	1	1	2
정기현	0	1	1
조성철	0	1	1
채계순	0	3	3
홍종원	0	3	3
합계	14	55	69

제8대 의회가 개원하고, 2018년의 경우에는 총 14건의 5분 발언이 있었고, 2019년에는 55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9년에는 22명의 의원 중 20명의 의원이 5분 발언했다. 구분환 의원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소연 의원이 6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인식, 박혜련, 우애자 의원이 각

각 4건, 문성원, 민태권, 오광영, 우승호, 채계순, 홍종원 의원이 각각 3건, 김찬술, 남진근, 윤종명 의원이 각각 2건, 손희역, 윤용대, 이광복, 이종호, 정기현, 조성철 의원이 각각 1건씩 발언했다. 반면 권중순, 김종천 의원은 1건도 발언 하지 않았다. 2018~2019년 전체를 보면, 구본환 의원이 9건으로 가장 많은 5분 발언을 했다.

#### 4. 집행감시 평가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는 “의회의 제1책무는 견제와 감시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견제와 감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의회의 정례회와 임시회다. 모니터링팀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241회 임시회부터 246회 정례회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 1) 제241회 임시회 평가

241회 임시회에서 개최된 상임위원회 대부분, 대전시 2019년 사업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가 보이지 않았다. 특히 복지환경위원회는 대전시 복지환경 정책 방향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한다. 생활복지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환경 및 생태계에 대한 기조를 수립하고, 그 방향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① 241회 행정자치위원회

남진근 의원은 원론 수준 질의에 그쳤고, 민태권 의원 역시 원론적인 질의와 당부로 일관했다. 반면, 조성철 의원은 지난 회기보다 다양한 분야의 질의를 했다. 꼼꼼한 자료조사와 준비가 좋았지만, 선택과 집중이 더 필요하다. 무엇보다 조성철 의원이 지적한 행정 용어에서 외래어 표기를 지양하고, 한글 표기를 권장한 건 눈여겨 볼만하다. 홍종원 의원의 경우, 문제 제기는 좋았으나 당부 수준으로 질의를 마치는 경우가 많았다.

##### ② 241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개별 평가가 불가한 회기였다.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대부분, 자료 요청과 사실관계 확인에 그쳤다.

##### ③ 241회 산업건설위원회

권중순 의원은 확인과 당부 수준 발언에 그쳤고, 윤용대 의원 역시 확인과 당부 수준 발언이었다. 윤용대 의원은 빈번한 자료 요청에 비해, 후속조치나 지적이 부족하다. 오광영 의원의 경우에는 핵심을 짚어 명료하게 질의해야 한다. 김찬술 의원은 질의는 논리적이고 예리하다. 하지만 지난 회기 때보다 대표성이 떨어졌다. 우승호 의원은 많은 공부와 사전 조사를 해서 질의한 게 보인다.

#### ④ 241회 교육위원회

김인식 의원의 누리과정표준보육료 문제 제기는 우수하다. 하지만 어린이집 운영 뿐 아니라, 대전시 전체 교육 문제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김소연 의원은 확인과 당부 수준의 질의였고, 문성원, 우애자 의원은 원론적인 질의로 일관했다.

#### ⑤ 241회 우수 질의

- 홍종원 의원(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33쪽) : “대전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외부사업소 직무교육 강화” 강조.
- 구본환 의원(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15쪽~) : 대청호 태양광 발전소에 따른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 표명하며, 대전시 관할을 넘어서는 수자원 관리 중요성 언급.
- 정기현 의원(제2차 교육위원회, 26쪽~) : 예지중고 사태에 따른 대전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질타.

#### ⑥ 241회 문제 발언

- 오광영 의원 :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5쪽) : “특히 그게 연초에 확정이 되고 또 연초 인사를 다니면서 유성 온천동 쪽에 가장 핫이슈인 것이 장대도침에 대한 내용이라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2) 제242회 임시회 평가

상임위원회는 물론 본회의에서 본청의 자료 제출 미비는 시의회 경시임을 지적했다. 지적이 계속되면 시의회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고유 핵심사업과 대전시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는 없고, 소규모 단위 사업 확인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교육위원회는 질의다운 질의가 거의 없었다. 교육청 견제라는 본연의 의무에 너무도 소홀한 회기였다.

무엇보다 4개 상임위원회 모두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보다는 개별 사업에 대한 확인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반복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의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와 개선 요구보다는, 사업의 표면에서 표류했다. 사업 내용 파악은 상임위에서 미리 질의하고, 파악해야 했다. 더욱 실망스러운 건, 상임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질의조차 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었다. 추경 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실망스런 임시회였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오광영 의원의 시정질의했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 인사에 대한 공무원 편중임용 문제 지적은 적절했다. 또한 김소연 의원이 보조금 지원시설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무산 과정 중 의원들의 단체 서명 철회에 대한 문제제기도 적절했다.



#### ① 242회 행정자치위원회

남진근 의원은 준비 없는 질의로 일관했다. 민태권 의원은 여전히 원론적인 질의와 당부로 일관됐다. 조성철 의원은 질의가 구체적이거나 대안까지 이끌어내지 못했다. 홍종원 의원은 세부적인 현장 조사를 했지만, 핵심 의제로 이끌어내는 게 더욱 필요하다.

#### ② 242회 복지환경위원회

구본환 의원은 이슈에 대한 반복 질의가 계속되고 있다. 향후에는 문제 제기에 대한 대책을 적극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손희역 의원은 질의에 구체성을 담아 대안을 이끌어내야 한다. 채계순 의원은 원론적 질의 속에, 확인과 설명 요구가 대부분이었다. 윤종명 의원은 당부 수준 질의가 대부분이며, 여전히 자료 요청이 빈번하다.

#### ③ 242회 산업건설위원회

권중순, 윤용대 의원 모두 원론적 질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질의 내용의 구체성이 필요하다. 그나마 두 의원 모두 이번 회기에서 거의 질의하지 않은 건, 더욱 큰 문제다. 김찬술 의원은 명확한 근거 속에 질의하고 내용이 구체적이다. 다만 피감기관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는 피해야 한다. 오광영 의원은 노은, 장대 지구 관련 질의가 주를 이뤘다. 대전시 전체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질의가 필요하다. 우승호 의원은 사전 조사가 충실해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다.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관점으로 질의하며 대표성이 강화됐다. 하지만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

#### ④ 242회 교육위원회

정기현 의원은 개인의 질의보다도 위원장으로써 교육위원회 차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심층적인 질의가 필요하다. 김인식 의원은 전혀 질의를 하지 않았고, 김소연 의원은 사실 확인 질의 수준에 그쳤다. 2차 추경 심의 때는 김인식, 김소연 의원 모두 질의가 없었다. 문성원 의원은 질문에 내용이 보이지 않았다. 사전 조사가 미흡했다. 우애자 의원은 원론적인 질의 수준에 그쳤다.

#### ⑤ 242회 우수 질의

- 오광영 의원(제2차 본회의 8쪽) : 시정질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 임원 인사에 대한 공무원 편중임용 문제 지적. 대전시의 오래된 문제 중 하나로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자리를 옮겨서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관례로 인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기업 운영의 어려움 있음. 또한 공사, 공단 조직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승진 기회를 봉쇄하는 문제 역시 적절하였음. 함께 질의한 갑천친수구역 개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공공성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

- 김소연 의원(4차 본회의 29쪽) : 보조금 지원시설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무산 과정 중 의원들의 단체 서명 철회에 대한 문제제기 적절함.
- 구본환 의원(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4쪽) : 유산균 음료 배달 사업에 대한 실효성과 목적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며 대안 제시
- 구본환 의원(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6쪽) : 장동산림욕장 시설정비 사업의 현장 조사를 근거로 예산운용의 탄력성 제고 요청.
- 홍종원 의원(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31쪽, 97쪽) : 본예산에서 이미 책정돼야 할 예산들이, 뒤늦게 추경에서야 1회성 행사 예산들로 책정되는 걸 지적.

## ⑥ 242회 문제 발언

- 권중순 의원(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21쪽) : 질의 중 충청권광역철도망 사업시행자 주체에 파악하지 못함. 사전 조사 미흡

○권중순 위원 그런데 그 사업시행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예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대전시에서 공사하는 게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시가 아니고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것이 조속히 준공되고 안정화되도록 대전시에서는 노력을 하고 그래서 결론이 난 것을 보니까 이렇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호남선·경부 선 국철 여유분을 활용해서 1단계는 도시철도 3호선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고 2단계는 신탄진에서 조치원까지 가는 것, 3단계는 거기에서 청주공항 가는 것, 그렇게 3단계까지 되는데. ○권중순 위원 하여간 결론적으로 공사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한국철도시설공단.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복선 일부 구간도 있고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보니까 나중에 이게 준공이 되면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를 가지고 또 쟁점이 됐었던 것 같은데 현재 대전시에서는 국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 같고, 국가에서는 대전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그런 것 같아 요, 보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게 운영비 부담 문제 특히 철로 사용료 문제, 이게 우리 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광역시가 앞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대구광역시가 자기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마당이고 우리가 먼저 그것을 선뜻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대략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준공시점이 2024년이 잿아요.

- 이광복 위원장(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82쪽) : 지역 및 학생들의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문제 발언.

○위원장 이광복 예, 그런데 왜 유독, 물론 대전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 외국 인한테 무지하게 약한 것 같아요. 지금 대전시 내 국내에 있는 기업이 대전을 떠나도 못 막고 있는 마당에, 그만큼 기업 지원도 못해주고 있는데, 김찬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약하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대전에서 대한민국 모 굴지의 그룹 회사가 대전을 떠나면서 하신 말, “대전에서 뭐 나는 게 없다, 그러나 있는 회사는 잘 지켜라!” 그 한마디 해주고 떠났어요. 있는 회사도 지원 못하면서, 한국사람 것도 지원 못하면서 그렇게까지 하실 이 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저희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전주 이쪽 또 청주, 다 이런 부분 한번 보시면 산업단지 엄청 납니다, 또 세종시. 130만을 따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업체를 다 꼬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 대

전시 내에서 돈을 벌어주는 큰 회사들이 공장을 증설 하려고 해도 거기에 맞는 땅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노리고 외부의 다른 시에서는 오라고 손짓하고 있고. 그런 점을 좀 해서 과감하게 하실 것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뺏겼던 삼성, 지금 아산공단에서 아주 천안시민들까지 신나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기 갈 만한 아이도 아닌데 삼성 거기 에 취업이 되어서요, 아주 집안에 경사 났다고, 이 정도 해서 잔치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님!

- 남진근 의원(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10쪽) : 청년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경제국 소관인데, 공동체지원국을 대상으로 질의 및 비판. 소관 부서 파악 못함.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쪽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은 청년주도의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청년활동 등의 일 경험을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연계를 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안부의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응모를 해서 당첨이 돼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청년들이 관련된 기업이나 단체 등 한 15개 정도를 선정하고 또 사업장별로 1 개 사업당 2명 정도로 해서 미취업청년 30여 명이 가서 직접적으로 일 체험을 하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향후에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청년정책과가 그래도 청년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되는 거지요, 맞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우리 전국 8대 특·광역시 보면 하위수준이예요, 대전이. 알고 계시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어떤 말씀? ○남진근 위원 청년 고용률 말이에요, 고용률. 어떤 게 아니라 청년 얘기하는데 어떤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대전이. 내려가고 있다고. 돈을 쓰는 데 반해서 일자리는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들으면. 그러면 지금 청년정책이 부족하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지금까지 해온 결과로 보면, 어떻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취업난 이런 부분이 심각해지고 고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조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청년일자리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가 저희는 경제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은. 그리고 저희는, 청년정책과에서는 컨트롤타워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조율과 총괄 조정하는 부분과 그리고 현재 일부 행안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역일자리 공모사업 같은 것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고용률이나 취업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남진근 위원 미흡한 부분을 사실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다양한 정책을 펴고 는 있어요, 맞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변명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창업이나 아니면 창작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10명 창업해서 성공률 이 몇 퍼센트입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10명이 창업하면 생존율은 한 2,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건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보면 10명 중 3명 정도, 그렇지요? 그러면 7명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투자해서 7명을 또 실업자를 만 드는 양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국비 받았다고 해서 해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이나, 이것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빅데이터가 구축되고 있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 창업률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정책과에서는 주로 청년취업희망카드, 창업지원카드 형태로 해서 취업과 창업을 동시에 지원해주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청년창업에 대한 직접 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경제국에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진근 위원 청년정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쯤 되네요, 보니까.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그렇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건 청년에 대한 일 자리정책을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지금 일자리현황이 수준별로 세분화된 것도 파악이 약하고 또 큰 틀에서 보면 빅데이터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중구난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걸 지적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국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지적하겠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꼭 파악해서 데이터 구축을 해서 앞으로라도 청 년들이 취업하는 데 아니면 창업하는 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해나가야지 무조 건식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국과 같이 협력해 가면서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3) 제243회 제1차 정례회 평가

결산회기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에 대한 질의가 부족했고 이전과 다르지 않은 질의로 채워졌다. 지적만 할 게 아니라 개선을 이끄는 활동으로 변화해야 한다.

향후에는 정책과 이슈에 대한 준비가 충실해져야 한다. 또한 계속 지적하는 대전시 산하 기관의 예산 집행 문제와 감사 문제에 대해서 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및 특위 구성도 고려해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대전시나 대전시교육청 모두 불용액 관련 답변 태도는 매우 불성실하고 불량했다.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차원의 대책도 향후에는 마련돼야 한다. 그럼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찬술 의원의 성실한 준비와 의미 있는 질의는 칭찬할 만하다.

#### ① 243회 행정자치위원회

남진근 의원은 성의없고, 준비없는 질의로 일관했다. 민태권 의원은 여전히 원론적인 질의와 당부로 일관됐다. 조성칠 의원은 질의가 구체적이나 여전히 대안까지 이끌어 내지 못했다. 홍종원 의원은 질의가 더욱 핵심 의제로 가야한다.

#### ② 243회 복지환경위원회

구분환 의원은 구체적인 질의와 명확한 요구를 한다. 지난 회기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손희역, 채계순 위원의 복지재단에 대한 시의성 있는 지적은 적절했다. 윤종명 의원은 여전히 확인 수준의 질의와 내용만 확인하고 있다. 변화가 필요하다.

#### ③ 243회 산업건설위원회

권중순 의원은 8대 의회 회기 내내 의원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에 대해서 무책 임하고, 무성의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번 회기에서도 사전조사 없는 무성의한 질의를 한다. 반면, 김찬술 의원은 질의는 구체적이었고, 성실한 준비가 돋보였다. 오 광영 의원의 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논란에 대한 질의는 유의미했다. 하지만 다른 질의의 경우, 설명 요청으로 시간을 소요하기보단, 핵심 질의로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 우승호 의원은 지난 회기에서 질의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여러 회기에 걸쳐서 특정 이슈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윤용대 의원은 내용 확인 수준의 질의로 일관했다.

#### ④ 243회 교육위원회

김인식 의원은 의원 개인의 정치적 발언보다 본연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김소연 의원은 교육위원회에 집중하는 질의가 필요하다. 문성원 의원은 전체적인 준비는 충실히 했지만, 집행 기관의 변화를 이끌기에는 구체성이 담겨야 한다. 우애자 의원은 원론적인 질의에 그쳤다.

#### ⑤ 243회 우수 질의

- 조성칠 의원(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19쪽 ~ ) : 불용액 지적과 함께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행정의 불일관성 지적
- 조성칠 의원(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17~19쪽) : 해외연수를 바탕으로 대전 문화정책이 고려해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 용어 개선 요구
- 김찬술 의원(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쪽) : 교육청 회계시스템 개선 요구 및 예산 전용 지적
- 김찬술 의원(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8쪽) : 보조금 점검에 대한 감사 요구 및 법안, 행정지침 마련 요구

#### ⑥ 243회 문제 발언 : 없음

#### 4) 제244회 임시회 평가

상반기 사업 결산 및 하반기 업무 계획 회기임에도, 확인 수준의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사업에 대한 방향성과 대안 제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질의들로 이뤄져야 한다. 의정 활동 1년째다. 업무파악만 할 게 아니라 이슈를 발굴해야 한다. 특히 의원으로써의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들의 공부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① 244회 행정자치위원회

남진근 의원은 질의에 내용이 없다. 민태권 의원은 사전 조사 없는 질의 속에 내용만 확인한다. 조성칠 의원은 질의는 구체적이다. 이제는 행정 변화까지 이끌어내야 한다. 홍종원 의원은 대안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당부 수준에 그쳤다.

#### ② 244회 복지환경위원회

구본환 의원의 질의는 구체적이다. 하지만 대안만 요구할 게 아니라, 직접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손희역 의원은 적극적이지만, 질의에 내용을 더 담아야 한다. 윤종명

의원은 계속해서 확인 수준의 질의와 내용을 반복한다. 채계순 의원 또한 사업 내용을 확인하는 질의가 많았다.

### ③ 244회 산업건설위원회

권중순 의원은 회의장에서 고압적인 태도가 보였다(3차 37쪽). 또한 무성의한 회의 준비가 여전하다. 김찬술 의원은 질의가 매우 구체적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그러나 대덕구와 다른 구를 비교하며 ‘대덕구가 재산세를 가정 적게 낸다며 재산세 많이 내고 싶다는 발언’은 의원으로써 부적절했다. 오광영 의원은 원론적인 질의만 했다. 우승호 의원은 질의는 다양하나, 대전시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방법이나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윤용대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자료요청이 가장 많았던 의원 중 하나다. 하지만 그 자료 요청의 결과들이 의정활동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시민과 공유되지도 않았다.

### ④ 244회 교육위원회

김인식 의원과 김소연 의원은 지난 회기와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김인식 의원은 원론과 당부 수준의 질의였고, 김소연 의원은 교육위원회에 집중된 질의가 없다. 문성원 의원 또한 원론적인 질의에 그쳤다. 우애자 의원은 원론적인 질의 속에, 학생들의 예술 관련된 질의는 현장성이 보였다.

### ⑤ 244회 우수 질의 : 없음.

### ⑥ 244회 문제 발언

- 김찬술 의원(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31~33쪽) : 대덕구와 다른 구를 비교하며 대덕구 소외론과 개발논리를 펼침, 하지만 회의석상에서 의원으로 발언하기에는 부적절함.

김찬술 위원 : 그러면 20년 후에 연축동 개발지역이, 20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덕구의 중심이 서겠습니까? 안 섭니다. 지금 동구 지역에서 그나마 와서 환승할 수 있는 것은 회덕역밖에 없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데. 결국에 나중에는, 제가 그냥 어리석게 판단하는 것은 여기에서 신탄진으로 해서 구죽으로 해서 유성으로 넘어가는 노선은 분명히 생기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행 이것이 선행됐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선 의원님이 내용을 짧게 5분씩만 하자고 해서 저도 마무리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본부장님, 만약에 제가 대덕구에 주택을 갖고 있고 재산을 갖고 있는데 재산세가 적게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 재산증식은 갖고 있는 사람의 소박한 꿈입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따지기 이전에 대덕구의 경제현실이 지금 재산세도 적게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공시지가가 떨어져서요.

- 이광복 위원장(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40쪽) : 도로의 위험을 지적하면서,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고, 행감 때 언급하겠다고 말함. 당장 시민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발언에만 집중.

위원장 이광복 : 본부장님, 대전시 내 도로 보수공사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크랙이 많이 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커팅하셔서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도로에 대한 기울기를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미리 팁 드리는 거예요. 중앙을 분리해서 아까 2%가 넘는 위험물 도로가 기존에 있는, 중구 쪽 이런 데 보면 많이 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봤고, 제가 가도 차의 기울기가 중앙에서 봤을 때 1차선과 2차선으로 해서 3차선 갈 때는 차가 이렇게 가요, 이 정도로.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도로로 보고 있는데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해줄 거예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할 게 없으니까.

## 5) 제245회 임시회 평가

정체기를 보이는 회기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회의 준비가 잘 돼 있고, 의원 간 질의 내용 배분도 적절했다. 박혜련 위원장의 회비 준비와 진행 운영이 돋보였다. 특히 용역이나 민간 위탁에 대한 대전시의 준비 부족에 대한 지적은 적절했다. 반면 교육위원회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발언을 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었으면, 내용이 거의 없어 평가 자체가 불가했다.

산업건설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는 점점 하향평준화 되는 모습을 보였다. 분발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김찬술 의원만큼은 가장 우수한 질의와 내용을 보였다. 다만 김찬술 의원에게 아쉬운 점은 자신의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 지역균형을 근거로 감정을 앞세우는 발언들이 많다는 점이다. 대전시 전체 관점이 필요하다.

새롭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본환 의원을 제외하고는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는 의원 개인별 관심 사업에 대한 질의와 질타가 대부분이었다.

### ① 245회 행정자치위원회

남진근 의원은 여전히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 민태권 의원은 자료요청 검토 이후, 이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조성철 의원은 자료와 내용을 꼼꼼히 검토했다. 정책 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과 질의는 좋으나, 의회 차원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홍종원 의원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질의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견제 및 개선까지는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 ② 245회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모두 이번 회기에는 질의에 핵심이 없었다.

### ③ 245회 산업건설위원회

권준순 의원과 윤용대 의원은 의미없는 질의를 반복하고 있다. 김찬술 의원은 지난 회기에서도 지적했던, 지역균형을 근거로 자신의 지역구만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지만 가장 우수한 질의와 내용을 보였다. 오광영 의원은 회기마다 같은 질의가 반복된다. 우승호 의원은 연구 자료와 현장에 근거한 자료조사가 더 필요하다.

#### ④ 245회 교육위원회

243회부터 이번 회기까지 위원회 평가가 거의 불가할 정도다. 평가할 내용이 전혀 없다. 심지어 김인식, 우애자 의원은 한 번의 발언도 하지 않았다.

#### ⑤ 245회 우수 질의 : 없음.

#### ⑥ 245회 문제 발언

- 김소연 의원(1차 본회의 8쪽) : 5분 발언 중, 동자치지원관 문제제기 과정 중 청년 실업률과 공무원 시험 경쟁률을 연결하는 논리비약이 심함. 또한 동자치지원관의 인건비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비판하는 모습을 보임.
- 김소연 의원(2차 본회의 52쪽) : 5분 발언 중, 추측을 기반으로 특정인과 특정 단체에 대한 비난을 함. 또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기정사실화하며 비판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써 지양해야함

#### 6) 제246회 제2차 정례회 평가

행감 이후 회기였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내용은 눈에 띄지 않았다. 다만 위원회 별 수준 편차가 컸다. 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더욱 분발이 요구된다.

또한 홍종원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피감 기관들이 산출 근거 없는 내역을 추정해서 보고하는 건 지양돼야 한다. 대전광역시의회 또한 이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산출근거 없는 자료 제출로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승호 위원장과 김소연 의원의 시의원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논쟁은 부적절한 모습이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본질에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3차 본회의에서 김종천 의장이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특정 종교와 단체들의 왜곡된 혐오표현을 반영하여 의장 직권으로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은 건 문제가 매우 크다.

#### ① 246회 행정자치위원회

남진근 의원은 질의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민태권 의원은 확인 질의가 대부분이고, 자료요청이 빈번하다. 사실관계는 질의 전에 파악해야 한다. 조성철 의원은 질의가 구체적이고, 개선 요구를 명확히 한다. 자료 요청도 적절했다. 홍종원 의원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질의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견제 및 개선까지는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 ② 246회 복지환경위원회



구본환은 보편타당한 질의로 일관했다. 손희역, 채계순 의원은 본인이 관심 가는 분야의 질의가 대부분이다. 윤종명 의원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여전히 자료 제출 요구가 빈번하다.

#### ③ 246회 산업건설위원회

권중순 의원은 질의에 내용을 담아야 한다. 김찬술 의원은 질의가 매우 구체적이며, 대전시 사업의 우려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다. 다만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산하 기관 부실 문제는 집중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오광영 의원은 같은 질의가 반복된다. 질의에 구체성이 없다. 우승호 의원은 이번 회기에서 질의에 대한 사전조사가 철저했다.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윤용대 의원은 2019년 회기 내내 자료만 요청했다. 견제나 대안 마련에 대한 연구와 질의는 보이지 않았다.

#### ④ 246회 교육위원회

김인식 의원은 이번 회기에서 내용 있는 질의를 했다. 김소연은 사업 내용만 확인했다. 문성원 의원은 질의에 요점을 담아야 한다. 우애자 의원은 대표성을 띠려고 노력하지만 내용 파악이 안 돼 있다.

⑤ 246회 우수 질의 : 없음.

⑥ 246회 문제 발언 : 없음.

## IV. 결론

### 1. 겸직현황

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6명, 2019년 역시 6명으로 나타났다. 남진근, 이종호, 권중순, 김소연, 손희역 의원은 여전히 겸직이 유지됐고, 이광복 의원이 추가됐다. 시의원의 겸직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영리 행위가 일어나는 직군인 경우에는 청탁과 민원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이 영리행위를 하는 직업군에 속할 경우에는 어떠한 시정 장치가 있어야 한다.

### 2. 자치입법 평가

1년차 때(2018년 하반기) 제.개정된 조례가 14건(제정 8건, 개정 6건)이었던 반면, 2019년 2년차 접어들어서는 103건(제정 44건, 개정 59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22명의 의원 중 21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전체 제.개정 대표발의는 홍종원 의원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계순 의원이 8건, 구본환 의원이 7건, 민태권, 오광영, 윤용대 의원이 각각 6건, 남진근, 박혜련, 우승호, 이광복, 이종호 의원이 각각 5건, 김찬술, 문성원, 조성칠 의원이 각각 4건, 권중순, 김소연, 김인식, 손희역, 우애자, 윤종명, 정기현 의원이 각각 3건을 발의했다. 김종천 의원은 제정, 개정 모두 발의하지 않았다.

이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는 2018년 종합 보고서에서 광주, 부산, 경기도처럼 조례의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실효성, 공평성, 주민의견 수용성, 조례 지원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대전 현실과의 부합성 등을 담은 입법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45회 임시회에서 김소연 의원이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 발의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향후 이 조례가 적정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평가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하지만 245회에서 윤용대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 문제, 대덕구의 기존 지역화폐와의 조율 문제 등을 이유로 보류한 있으나, 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뚜렷한 대안 없이 통과된 건 문제가 있다.

### 3. 주민대표 평가

주민대표 평가 지표로 주민의견수렴 활동(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회의 출석율, 5분 발언을 살펴봤다.

#### 1) 주민의견수렴(간담회/토론회/공청회/설문조사)

22명의 의원 중 19명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2018년에 비해 양적으로 간담회와 토론회가 증가했을지는 몰라도 직접적으로 지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나 설문조사가 없는 건 아쉬운 장면이다.

2019년 활동을 의원별로 나눠 보면 구본환, 김인식, 정기현 의원이 간담회와 토론회를 각각 6회 개최해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 이어 김소연, 문성원, 조성칠 의원이 각각 5회, 채계순 의원이 4회를 개최했다. 김찬술, 오광영, 우애자, 윤종명 의원이 각각 3회, 남진근, 우승호, 홍종원 의원이 각각 2회, 민태권, 이광복, 이종호 의원이 각각 1회를 개최했다.

반면 권중순, 김종천, 손희역 의원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단 1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반복하지만 주민대표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주민의견수렴 활동이다. 2020년에는 더욱더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활동을 넓혀야 한다.

## 2) 회의 출석율

2019년 241회 임시회부터 246회 정례회까지 공식적으로 134회의 회의가 개최됐다. 2019년에는 불참율이 지난 2018년 7건에 비해 19건으로 늘어났다. 강조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회의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회의 출석은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3) 5분 발언

제8대 의회가 개원하고, 2018년의 경우에는 총 14건의 5분 발언이 있었고, 2019년에는 55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9년에는 22명의 의원 중 20명의 의원이 5분 발언했다. 구본환 의원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소연 의원이 6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인식, 박혜련, 우애자 의원이 각각 4건, 문성원, 민태권, 오광영, 우승호, 채계순, 홍종원 의원이 각각 3건, 김찬술, 남진근, 윤종명 의원이 각각 2건, 손희역, 윤용대, 이광복, 이종호, 정기현, 조성칠 의원이 각각 1건씩 발언했다.

반면 권중순, 김종천 의원은 1건도 발언 하지 않았다. 2018~2019년 전체를 보면, 구본환 의원이 9건으로 가장 많은 5분 발언을 했다.

5분 발언 중 눈에 띄는 부분은 242회 임시회에서 김찬술 의원의 “가칭)대전교통공사 설립 및 대전 동북부 순환도로 교통망 구축 필요”, 정기현 의원의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관 신설 촉구”, 24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본환 의원이 발언한 “유·초·중학교 공동급식 개선대책 관련”은 재정여건, 현장방문 등을 통한 근거 있는 대안제시로 우수한 질의였다.

또한 244회 임시회에서 박혜련 의원이 발언한 “임기제 공무원 임기 자동 연장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은 임기제공무원의 노동환경을 환기시켰고, 245회 임시회에서 우승호 의원이 발언한 “대전시 홈페이지 활성화 통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견제로서 적절했다.

그러나 2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소연 의원이 “8개동 자치지원관 사업 현황

및 문제점” 5분 발언을 통해 동자치지원관 문제제기 과정 중 청년실업률과 공무원 시험 경쟁률을 연결하는 것은 논리비약이 심했다. 또한 동자치지원관의 인건비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김소연 의원은 2차 본회의에서도 “지역화폐 사업의 위법성 및 예산편성과 집행상 문제점” 5분 발언에서도 추측을 기반으로 특정인과 특정 단체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다. 지역화폐가 문제라면 어떤 문제가 위법적이고, 사업성이 부족한지 근거를 들어야 하는데 추측을 기정사실화 하며 비판하고, 그것이 특정인물, 단체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 **4. 집행감시 평가**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는 “의회의 제1책무는 견제와 감시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견제와 감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의회의 정례회와 임시회다. 모니터링팀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241회 임시회부터 246회 정례회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 **1) 제241회 임시회 평가**

241회 임시회에서 개최된 상임위원회 대부분, 대전시 2019년 사업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가 보이지 않았다. 특히 복지환경위원회는 대전시 복지환경 정책 방향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한다. 생활복지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환경 및 생태계에 대한 기초를 수립하고, 그 방향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제242회 임시회 평가**

상임위원회는 물론 본회의에서 본청의 자료 미비에 대해서 시의회 경시에 대해서 지적했다. 지적이 계속되면 시의회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고유 핵심사업과 대전시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는 없고, 소규모 단위 사업 확인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교육위원회는 질의다운 질의가 거의 없었다. 교육청 견제라는 본연의 의무에 너무도 소홀한 회기였다.

무엇보다 4개 상임위원회 모두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보다는 개별 사업에 대한 확인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반복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의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와 개선 요구보다는, 사업의 표면에서 표류했다. 사업 내용 파악은 상임위에서 미리 질의하고, 파악해야 했다. 더욱 실망스러운 건, 상임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질의조차 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었다. 추경 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실망스런 임시회였다.

##### **3) 제243회 제1차 정례회 평가**

결산회기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에 대한 질의가 부족했고 이전과 다르지 않은 질의로 채워졌다. 지적만 할 게 아니라 개선을 이끄는 활동으로 변화해야 한다.

향후에는 정책과 이슈에 대한 준비가 충실해져야 한다. 또한 계속 지적하는 대전시 산하 기관의 예산 집행 문제와 감사 문제에 대해서 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및 특위 구성도 고려해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대전시나 대전시교육청 모두 불용액 관련 답변 태도는 매우 불성실하고 불량했다.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차원의 대책도 향후에는 마련돼야 한다. 그럼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찬술 의원의 성실한 준비와 의미 있는 질의는 칭찬할 만하다.

#### 4) 제244회 임시회 평가

상반기 사업 결산 및 하반기 업무 계획 회기임에도, 확인 수준의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사업에 대한 방향성과 대안 제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질의들로 이뤄져야 한다. 의정 활동 1년째다. 업무파악만 할 게 아니라 이슈를 발굴해야 한다. 특히 의원으로써의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들의 공부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5) 제245회 임시회 평가

정체기를 보이는 회기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회의 준비가 잘 돼 있고, 의원 간 질의 내용 배분도 적절했다. 박혜련 위원장의 회비 준비와 진행 운영이 돋보였다. 특히 용역이나 민간 위탁에 대한 대전시의 준비 부족에 대한 지적은 적절했다. 반면 교육위원회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발언을 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었으면, 내용이 거의 없어 평가 자체가 불가했다.

산업건설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는 점점 하향평준화 되는 모습을 보였다. 분발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김찬술 의원만큼은 가장 우수한 질의와 내용을 보였다. 다만 김찬술 의원에게 아쉬운 점은 자신의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 지역균형을 근거로 감정을 앞세우는 발언들이 많다는 점이다. 대전시 전체 관점이 필요하다.

새롭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분환 의원을 제외하고는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는 의원 개인별 관심 사업에 대한 질의와 질타가 대부분이었다.

#### 6) 제246회 제2차 정례회 평가

행감 이후 회기였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내용은 눈에 띄지 않았다. 다만 위원회 별 수준 편차가 컸다. 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더욱 분발이 요구된다.

또한 홍종원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피감 기관들이 산출 근거 없는 내역을 추정해서 보고하는 건 지양돼야 한다. 대전광역시의회 또한 이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산출근거 없는 자료 제출로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승호 위원장과 김소연 위원의 시의원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논쟁은 부적절한 모습이었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본질에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3차 본회의에서 김종천 의장이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특정 종교와 단체들의 무리한 해석과 편견, 왜곡된 주장만을 반영하여 의장 직권으로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은 건 문제가 매우 크다.

2019년 대전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면 위원회간, 의원간 편차가 너무도 컸다. 거의 대부분의 의원이 원론적 질의와 확인과 당부 수준의 발언으로 일관했다. 의원들의 공부와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2020년에는 의원들이 3년차에 접어든다. 이제는 어떡하든 결실을 맺어야 할 때다. 특히 본연의 책무인 주민 대표, 입법 활동, 시정 견제라는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모니터링팀 또한 2020년에도 대전시와 대전광역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 V. 상임위원회별 우수 의원과 올해의 정치인

### 1. 2019년 각 상임위원회 우수 의원

2019년 의정 활동을 평가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수 의원을 선정했다. 안타깝게 2018년과 다르게 상임위원회별 우수 의원을 선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2020년에는 의원들의 분발을 기대하며, 더욱 충실한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란다.

- 행정자치위원회 : 없음.
- 산업건설위원회 : 김찬술 의원
- 복지환경위원회 : 없음.
- 교 육 위 원 회 : 없음.

### 2. 제20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올해의 정치인” : 없음.